

여수시의회 '무장애 도시' 만들기 적극 나섰다

민덕희·나현수·강현태 시의원 주최 토론회...전문가 참여 심도있는 논의
모든 시민 불편 없도록 도시계획·설계 반영 등 도시 경쟁력 키우기 총력

여수시의회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불편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민덕희, 나현수, 강현태 의원이 주최한 '우리는 배-프(Barrier Free)로 통한다'라는 주제 토론회가 지난 6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적인 고품격과 흐름에 무장애 환경은 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가 된 만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무장애 환경 조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건축·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규일 삼육대 건축학과 교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방안'과 이태수 전남대 특수교육과 교수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Barrier Free 이해 및 방향' 주제가 발제됐다.

이규일 교수는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으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증가를 들었다. 202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시설의 무장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수 교수는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만이 아닌

무장애 도시

시민들이 각종 개별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계획과 설계에 반영해 조성한 도시를 말한다. 세계적인 고품격과 흐름에 무장애 환경은 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가 된 만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무장애 환경 조성을 갖추고 있다.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의식변화와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전문가인 김대환 동백원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생활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발표하며 무장애도시 조성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켰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 실무를 책임져 온 민덕희 의원이 주재한 패널토론회에서도 무장애 도시를 향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현태 의원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관광하기도 좋은 도시이고, 무장애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매개체"라며 "무장애도시 조성을 통해 여수가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영미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무장애도시 조성방안으로 지속적인 교육, 시설물 턱 낮추기, 저상 시내버스 확대, 공공청사 등 BF 인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6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여수시의회 민덕희, 나현수, 강현태 의원 주최로 '우리는 배-프(Barrier Free)로 통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노미하 한국장애인부모회 여수시지부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광지 안내정보와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무장애도시 명칭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모두를 위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을 직접 지정사례와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무장애도시 조성 T/F팀을 만들자' 등의 의견도 나왔다.

민덕희 의원은 "무장애도시를 향한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과 큰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가 마련됐다"며 "토론회 성과를 통해 앞으로 더욱 장기적인

시각인 시민 의식개선 노력 등 국내 대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현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188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 필요성을 처음 밝혔고 민덕희 의원이 제 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무장애도시가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지난 3월 191회 임시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두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시청과 서울다누리관광센터를 방문해 무장애도시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 14일 예술마루서 정기연주회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31회 정기 연주회(포스터)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향연'이란 주제로 14일 오후 7시 30분 여수시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수 출신 유학파 연주자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다.

이번 연주회는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겸 예술감독인 임승 지휘자와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 빛나는 소프라노 박미자(서울대학교 교수),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이정아 교수, 여수 출신의 정상급 오페라 테너 진세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유럽 최고의 오페라 주연 가수로 활약하는 바리톤 허종훈 교수가 교향악과 전상의 목소리로 여수 밤바다를 수놓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또 지역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었던 지정익 박사 10주기 추모 헌정 음악회로 열리는 이 연주회는 고인의 철학이었던 '희미 있고 희미한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로시니와 푸치니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 마스카니의 간주곡과 세계 정상급 솔리스트들이 출연하는 격조 높은 무대로 평가되고 있는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향연'이 연주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속도...여수시-순천대박물관 협약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수시청 시청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육 순천대학교 박물관장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소장 여수시 출토유물 대여 전시 ▲여수박물관 건립 관련 전남 동부권 문화유적 연구성과 활용 ▲박물관 개관 및 전시에 대한 자문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종합박물관인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은 백제 고락산성 발굴 출토유물 등 여수시 출토 유물 175점을 소장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 7월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립박물관 유물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관광객에게 여수를 잘 전달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역사를 전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공원 부지에 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6300㎡ 규모로, 202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내년도 사업비 12억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9월부터는 유물 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자만 새꼬막 생산 줄어 어민들 울상

새꼬막축제도 내년 3월로 연기

전국 최대 새꼬막 생산지인 여수 여자만의 새꼬막(사진) 생산이 줄어 어민들이 울상이다.

당장 다음 달 14일 울촌면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꼬막 축제도 새꼬막이 나지 않아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울촌면 등 여자만에서 생산되는 새꼬막 작황이 좋지 않아 80% 이상이 폐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작황이 좋아 20kg들이 1방에 2~3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10만원까지 치솟았다.

새꼬막은 어린 꼬막(종패)을 그물에 담아 성체로 키운 뒤 채취를 하는데, 올해는 채묘(종자 불이기)가 잘되지 않아 수확량이 급감했다.

여수 지역에서는 2016년에 새꼬막이 4만t 생산됐으며 2017년에는 9만t이 생산됐다.

지난해에는 25만t이 생산됐으나 올해는 3만5000t에 그쳤다.

어민들은 새꼬막이 한 해 걸러 풍년과 흉년을 반복한다지만 생산량이 톱 떨어지자 근심이 깊다.



그물에 붙어 있는 종패도 빈 껍질이 많아 어민들은 아예 채취 작업을 중단했다.

강석형 불천 어촌계장은 "작년에는 새꼬막 알도 크고 채취량도 많아 괜찮았는데 올해는 적조와 태풍 때문인지 빈 껍질이 많다"며 "작년에는 하루에 1만개 이상을 채취했는데 올해는 하루에 몇백개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1억원을 들여 새꼬막 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수소전기차 25대 보조금 지원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산업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 자동차 25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한 대당 구입 보조금은 3750만 원이며 다자녀 우선이 3대, 일반이 22대다.

시민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해 여수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와 법인·단체는 공고일 기준 분사·지사 등이 여수에 있어야 한다.

다자녀 우선은 자녀 3명 이상, 막내 자녀 미성년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세대, 업제당 1대만 가능하고, 신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수소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19. 11. 23 SAT — 11. 24 SUN

대구광역시 일원

11월 23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8:00	탐방 프로그램 (예술발전소 & 청춘맨션 등)	Part2. 달빛나눔 19:00~21:00	개막식 / 멘토특강 / 달빛콘서트
11월 24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4:00	투어 프로그램(대구 근대문화로 골목 투어)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종사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9. 11. 19(화)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숙식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